

고흥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의 든든한 디딤돌

건강·보육·복지 분야 등 70여개 프로그램 제공

생후 8개월~36개월까지 영아 맞춤 보육서비스

고흥군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육·복지 분야 70여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흥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건강 분야(이·미용 서비스, 안경 지원, 태권도 학원연계) ▲보육 분야(학습지원, 언어치료) ▲복지 분야(심리치료, 가족힐링캠프, 피아노 학원연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후 8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적 개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족과 함께 문집 만들기, 꿈 숨이 키우기 등 아동과 양육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가족 기능 강화에도 더욱 힘쓰게 된다.

현재 관리 대상 206가구, 308명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연 2회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 연계망 구축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아동복지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고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세심히 아동과 가정을 살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드림스타트는 2009년 개소한 이래,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평가 결과 대통령 기관표창(3회),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3회)을

수여받은 등 명실상부한 취약계층 아동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저출산 극복 위해 복지시책 펼쳐

광양시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가임여성 검진·관리 △신생아 및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180% 초과까지 확대 지원한다.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비용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A형 간염 검사 외 28종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보건소에 입부 등록 시 풍진 검사 외 26종 검사도 무료로 실시한다. 아울러 임신 초기부터 12주 이내까지는 3개

월분의 엽산제를,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한다.

◇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지역 내 임신부의 산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 **신생아 양육비 및 산후조리 비용지원**
시는 신생아 출생 시 양육비를 첫째,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는 2021년 출생아부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산후조리 비용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도 20만 원을 지원한다.

◇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급**
지역 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광양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표준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한다.

◇ **전라남도 난임부부 추가 지원 및 육아용품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이자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추가로 1회당 20~150만 원의 난임시술 비용을 연 2회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는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 **광양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저출산과 청년층의 결혼 독려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 혼인신고 6개월 후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신안군 지도읍, 한파에 작은섬 방문 복지서비스 주민 감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접 방문해 생계급여 신청·접수

“위메위에 시상에 어찌쓰까! 이렇게 추운데 배타고 직접 여기까지 왔는가- 안죽고 살아 논게 이렇게 좋은세상 보네, 고맙고 감사해” 작은섬 선도주민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반기는 인사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선도주민들이 지도읍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선도에서 무안 신월항까지 배를 타고 20여분, 신월항에서 다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달려야 지도읍사무소에 도착해서 일을 볼 수가 있다.

신안군 지도읍(읍장 황성주)은 2021년부터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겨울철 한파에 작은섬인 선도·어의도에서 지도읍사무소까지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작은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작은섬에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하였다.

황성주 지도읍장은 “복지 체감



도가 낮은 작은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촘촘한 관리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작은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착수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건강한 삶의 기회 제공

무안군은 18일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7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1월부터 11월까지 11

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며, 무안군 505명,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483명,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347명, 종합사회복지관 230명, 무안시니어클럽 493명으로 총 2,058명을 모집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 시작 전 안전수칙 교육,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워크북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일자리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